



moonbears.org
'in harmony for no harm'

2013 11월 4일

RE: 국내 사육 반달곰은 보존의 가치가 없다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반달곰 프로젝트/ moonbears.org 성명서:

이번 11월 1일 윤장관의 발언은 지난 6년간 한국 반달 사육 곰 제도의 폐지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온 반달곰 프로젝트와 타 동물보호협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몰지각한 발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성급한 발언은 그 동안 국내에 꾸준히 조성된 열악한 사육 곰 사업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막고, 여러 세계동물보호단체의 사육 곰 제도 폐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실한 방향제시 요구에 대한 반동으로 생긴 것으로, 멸종 위기종 일 등급의 한국 사육 반달곰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의지는커녕 제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손 빠른 모습이 보여지는바 이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우리종이 아니니 가치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은 사육 곰을 관할하는 부처가 농림부가 아니라 왜 환경부이며, 국내의 모든 반달곰은 지리산 종 복원 사업의 일환인 지리산 반달곰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을 때마다 밀도살되는 998마리의 사육 반달곰도 CITES (국제멸종위기 종 거래에 관한 협약) 에 포함되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종으로 이의 CITES 협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이기엔 윤장관의 발언은 과연 환경부장관으로써의 자질을 충족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가에 대한 의심과 충격마저 들게 하는 말이다.

올해 정부예산 중 11억이 사육 곰 제도의 폐지와 그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 예산을 반달곰 보존은커녕 도살의 방향에 중점을 두었기에 우리는 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는 바이다.

PO Box 167, Sai Kung, Kowloon Hong Kong ,TEL: 8210- 4735 0363, 852 9037 0612

email: g.moon@moonbears.org, www.moonbears.org



moonbears.org
'in harmony for no harm'

현재 한국땅에서 신음하는 사육 반달곰의 개체 수는 모두 합해 998마리.

1980년 초 한국 정부 주도하에 시작된 이후로 곰 농가의 숫자와 정확한 사육 곰의 개체 수, 심지어 암.수의 구분을 짓는 관리 카드 하나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곰 사육장의 낙후된 시설이나 동물 학대에 관한 규율을 강도 있게 리드하기는커녕 사육 곰 농가에 질질 끌려 다니며 심지어 무허가 시설에 설치된 곰 사육장에도 한 일침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환경부를 우리 반달곰프로젝트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한국의 사육 곰 문제를 998마리 전부 구출하는 관점으로 성의 있게 임할 것이며, 세계멸종위기 종 제 일 등급으로 분류되어 전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고통 받고 신음하는 반달곰 전 개체에 대한 곰 사육장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고, 환경부는 가능한 빨리 사육 곰을 전 곰 농가로부터 적정가격으로 매입 해방시킨 후, 수컷 곰에 불임수술을 시행하고 이를 어기는 곰 농가에 한해서는 매입이 아닌 강경한 조치로 사육 곰을 강제 인수하며, 정부 허가가 난 땅에 곰 보호소를 설립하고 세계의 반달곰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그 해당 지역의 eco tourism 의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이 선행이 세계만방에 알려지도록 체계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을 하루 빨리 촉구한다.

문의: g.moon@moonbears.org

PO Box 167, Sai Kung, Kowloon Hong Kong ,TEL: 8210- 4735 0363, 852 9037 0612

email: g.moon@moonbears.org, www.moonbears.org